

권용진님 이력서 피드백

Q) 궁금한 내용 - “입사지원서” 특정 기업 제출 용도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제출할 때 쓰는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학력사항

- ☐ 대학교에서 데이터 과학 전공 과목 중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과목과 특별히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교육이수내역

- ☐ “아이티윌 프로젝트 중심 빅데이터 융합 머신러닝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배운 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2-3가지 정도 추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경력사항

- ☐ 경력이 없다면 항목 자체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입사 지원 양식이면, 지금처럼 빈 공간으로 뒤도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기타활동

- ☐ “다양한 데이터셋”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본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블로그 포스팅 링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참여 프로젝트

- ☐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소속에 대해서도 정보를 작성해보세요.
- ☐ 팀 프로젝트에는 팀원 별 역할 구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 ☐ “개발개요”도 줄글이 아닌 글머리 기호를 활용한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해보세요.
- ☐ 성과로 표현할 내용은 없을까요?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하지 못해도, 정성적인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면 좋겠어요.
- ☐ 참여한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것은 좋으나, 이력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10개 정도 되는 모든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사 지원 채용 공고에서 강조하는 역량이나 경험에 적합한 프로젝트 2-3가지를 선별하여 이력서에 담아 보세요.
- ☐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지, “문제 정의”입니다. 지금의 포트폴리오에 정리한 버전이 이력서에 담겨야 합니다. 이력서는 필수, 포트폴리오는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포트폴리오 버전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

- ☐ 지원동기 및 포부는 “기승전결”에 해당하는 이야기 구조가 필요합니다.
 - 기 : 데이터 분석 직무와 입사 지원 기업에 대한 관심
 - 승 : 해당 직무와 기업에 대한 탐구
 - 전 : 해당 직무를 입사 지원 기업에서 잘 수행하기 위한 학습
 - 결 : 해당 직무로 입사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 (또는 계획)
- ☐ 현재 작성한 버전이 위와 같은 이야기 구조로 잘 작성되었습니다. 입사 지원할 때, 기업마다 커스텀 된 내용으로 업데이트해보세요.
- ☐ 직무역량 성장과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해당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 ☐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역량을 나열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역량을 뽐내듯 증명하는 것입니다.
- ☐ 증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란 육하원칙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용이 포함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누가 (팀/개인 프로젝트 구분)
 - 언제 (0000년 00월, 프로젝트 진행 기간)
 - 어디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당시 소속 조직 또는 참여 이벤트 이름)
 - 무엇을 (목적 또는 목표)
 - 어떻게 (본인 역할)
 - 왜 (프로젝트 수행 배경)
- ☐ 자유 양식 자기소개서에서 소프트스킬은 한 가지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나열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뽐내듯 증명하는 것이 더 좋을기 때문입니다.
- ☐ 소프트스킬에 대한 작성 방식은 위 “직무역량 성장과정” 의견과 같습니다.
- ☐ 자유 양식 자기소개서에서 성격 소개 (성격의 장점과 단점) 내용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앞에 작성한 소프트스킬의 연장선으로 보이고, 많은 장점의 나열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성격의 단점은 입사 지원 기업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자유 양식 자기소개서에서 굳이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입사 지원 서류에는 지원자의 긍정적인 면만 볼 수 있게 하고, 입사 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단점을 작성해보세요.
- ☐ 단점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완벽하게 과거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극복했고, 성과를 충분히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